



## 생약초산업이 '블루오션'

화순 등지 황금·우슬 등 생산 늘려

기능식품·음료 개발... 관광 상품화

웰빙 열풍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생약초 산업이 기존 농업을 대체하는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따르면 황금, 우슬, 택사, 방울, 구기자, 결명자, 목단 등 35종의 한약 재배 여수, 고흥, 구례, 화순 등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1천 174㏊에서 5천 556㏊를 생산, 전국 대비 10%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면적이이나 생산량이 월등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은 지난 1995년 2천 170㏊에서 6천 480㏊의 약용작물을 생산했으나 저기 중국산 한약재의 유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안전하고 고품질의 한약재에 대한 수요증가와 환율영향으로 재배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장흥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64㏊가 42㏊에서 헛개나무, 결명자, 자황, 작약, 적하수오 등 15개 품목의 생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35.6㏊였던 것에 비하면 11.9㏊나 양적인 평창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각 지자체도 지역특성을 부합한 약초산업 육성에 밭벗고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2007년부터 약산지역의 특화품목인

생약초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군은 1단계로 지난 2007년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9㏊가 참여하는 삼지구엽초 등 생약초 재배단지 18㏊를 조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남도 농업기술원 역시 전남 지역에 적합한 황금·과당·우슬 등 주요 약초 선별과 표준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작물별로 ▲품종특성 ▲재배토양 조성 ▲재배방법

▲수확후 관리 등의 재배기술을 표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 약제와 안전한 사용기준을 정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수(황금), 적비름, 삼비녀, 바질, 고들빼기 등 약용 기능성 체소를 양액재배로 연중 안정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약초 산업은 1차 단순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2차 가공상품 개발, 3차 생약초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과 전연자원연구원은 전남 특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음료 개발과 한약재 종자 유통·보급 등 한방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전남에서 재배된 약용작물은 타지역에 비해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해 상품가치가 높다"며 "지역에서 한약재 생산이 늘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수입대체 및 외화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국산장미 신품종 '이노센스·탑핑크' 호평

장미 재배농가와 화훼공장 경매사 등 40여 명이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 장미 시험포장에서 열린 장미 신품종 현장판매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결혼식 부케와 꽃꽂이용으로 적합한 '이노센스', '탑핑크' 등 신품종 장미를 개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장흥댐 수몰민 벌초·성묘위해

수공 서남권관리단 선박운항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관리단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한 달간 장흥댐 수몰민의 벌초와 성묘를 돕기 위한 선박 운항을 실시한다.

선박 운항 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박운항 희망자는 전남 서남권관리단 고객지원과(061-860-3221)로 최소 3일 전에 전화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남권관리단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에는 170여 명의 수몰민이 선박을 이용해 벌초와 성묘에 나섰으나 올해는 강우량 증가로 이용객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여수문화예술공원 설계작 공개

### 시-GS칼텍스, 佛건축가 작품 중간보고회

GS칼텍스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여수시와 공동으로 조성을 추진 중인 여수문화예술공원 설계작이 공개됐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프랑스 출신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56)의 여수문화예술공원 설계작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GS칼텍스는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모든 시설물을 지하화하고, 캐노피를 이용해 예술적 가치를 발휘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도 "이 작품은 지역의 랜드 마크로 손색이 없다"며 "여수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수시와 GS칼텍스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1천여억원을 들여 다음달 착공 예정인 문화예술공원은 망마산, 장도, 고라산 일대 250여만㎡ 부지에 공연·전시장 중심의 문화예술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도 "이 작품은 지역의 랜드 마크로 손색이 없다"며 "여수의 도시

이나 문화예술공원은 망마산, 장도, 고라산 일대 250여만㎡ 부지에 공연·전시장 중심의 문화예술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도 "이 작품은 지역의 랜드

마크로 손색이 없다"며 "여수의 도시

## 화순 새송이버섯 홍콩 첫 수출

### 이달부터 토마토도 매달 30t씩 日·中으로

화순군의 10대 농특산물인 새송이 버섯이 홍콩에 첫 수출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 화순버섯연합회가 버섯취급 수출전문업체인 대흥농산유통사업단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새송이버섯 4.2t를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

이번 홍콩 수출물량은 31일 부산항을 출발하며 7일과 25일에도 각각 4t씩 총 8t를 수출키로 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판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화순에서 연간 생산되는 새송이버섯 1천t 가운데 480t이 홍콩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수출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이달부터 '자연연속爱 토마토'를 매달 30t씩 일본, 중국, 러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송이버섯 수출로 든든한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버섯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돼 화순지역 버섯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달부터 '자연속' 화순토마토를 매달 30t씩 일본, 중국, 러시아에 수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영암에 '농협 폴 주유소' 2호점

### 이달초 개장... 저렴한 가격 판매

### 음악회·전시회가 있는 민원실

#### 광양시청 문화공간 제공 시민에 인기

광양시 민원실이 단순 민원서비스를 뛰어넘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양시는 민원봉사실을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서비스·휴식서비스 등 3S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6개 월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에 이어 8월에는 어린이 7명이 연주하는 피아노 공연, 플롯·오키리나 연주회, 노래와 유통을 더한 피아노 연주회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 전시를 비롯해 서예작품, 천연 염색작품, 미술작품 등이 전시되기도 한다.

민원실을 찾은 B(46·중동)씨는 "민원을 보는데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음악회가 열려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졌다"면서 "민원실 벽을 이용해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민원이 없어도 가족과 찾아와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1만2천명 다녀갔다

### 나주시 가족 단위 피서객 많아... 지역경제 '반짝 특수'

지난 7월 말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에 피서객 1만2천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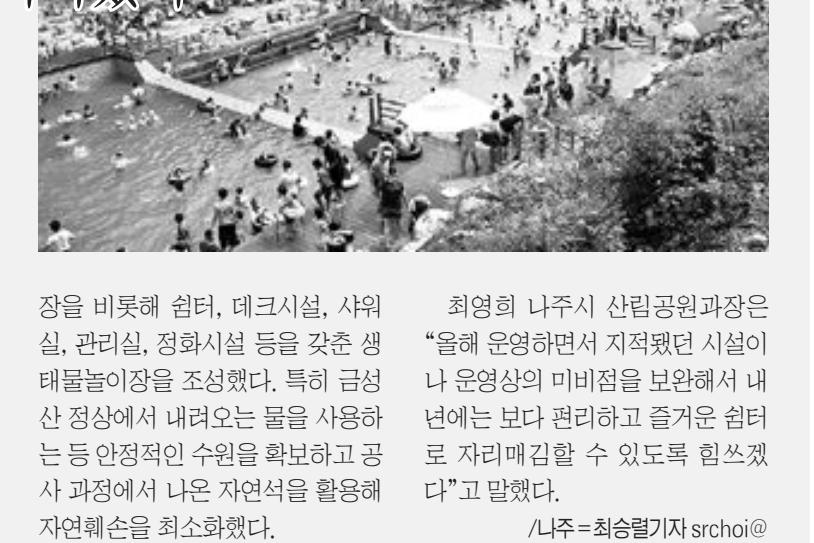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문을 연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이 연일 30℃를 웃도는 첨到场위를 피해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뤄 '물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지난

달 15일에는 1천800여 명, 16일에는 1천700여 명 등 주말과 휴일에 모두 3천500여 명이 몰렸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통닭과 피자 등을 주문배달하며 업체들의 매출도 급증해 지역경제에도 '반짝 특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알뜰한 피서를 위해 경협동 금성산 1만㎡의 산자락에 4억 원을 들여 3개의 풀



장을 비롯해 쉼터, 데크시설, 샤워실, 관리실, 정화시설 등을 갖춘 생태물놀이장을 조성했다. 특히 금성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는 등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고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자연석을 활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

## 공장급매

###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로

■ 대지 : 13,200㎡ [약 4,000평]

■ 건물 :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기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

☎ 010-3617-8810

### 부동산 투자 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옥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011-641-0925  
상당환영 062)515-4985**

#### \* 추천 금매물건 - 팬션부지최적 \*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8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원비 - 페리온, 회갑연, MT최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멧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필 -매매가 3.3㎡당 32만원-

■ 고시텔매매 ■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옵션)  
대 282㎡ / 건 560㎡ 를 52 실(룸 당 23평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 임야

▶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 대지

▶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 914㎡- 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 상가주택

▶ 대 498㎡/건 1487㎡(6층건물)-오차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시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십니다.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자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